

산업·경제
Industry·Economy

4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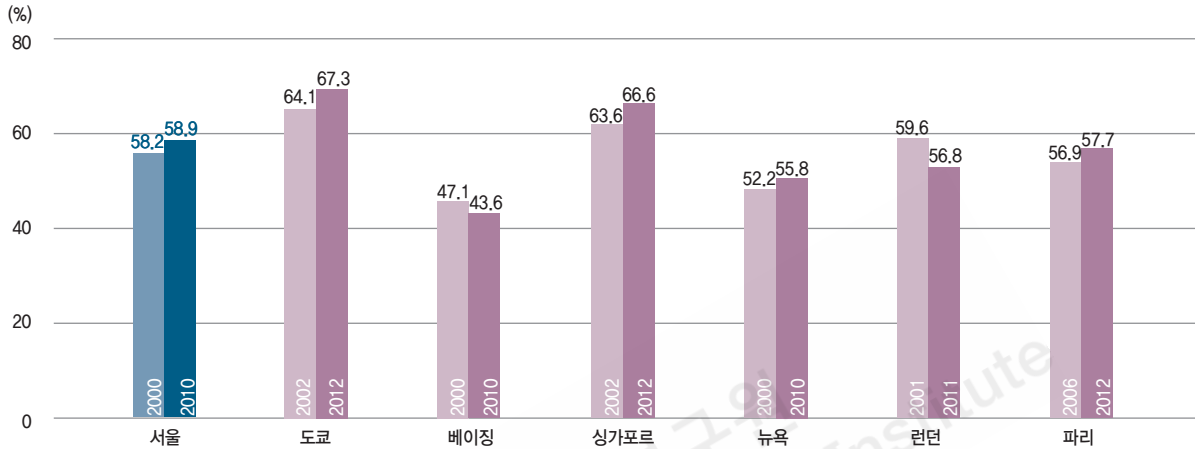
- 고용 Employment
- 산업 Industry
- 관광 Tourism



고용 Employment

고용률 Employment Rate

고용률 Employment Rate



비교대상도시 간 고용률을 비교하려고 한다. 고용률은 통계청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런던은 16~64세 인구를 기준으로 취업자 수 및 고용률을 계산하고, 파리는 주부, 학생, 퇴직자, 장애인들을 제외한 ‘경제활동인구(active population)’을 기준으로 고용률을 집계하여 다른 도시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들 도시를 제외한다.

5개 도시 모두 고용률은 베이징을 제외하고는 2000년경과 비교하여 2010년경(일부 2012년)에 증가하였다. 2010년경의 고용률을 보면, 싱가포르가 66.6%, 도쿄가 67.3%, 서울이 58.9%, 뉴욕이 55.8%, 베이징이 43.6%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이 싱가포르와 도쿄보다 낮지만 뉴욕과 베이징보다는 높다. 그러나 이 수치도 단순히 비교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더 자세히 봐야 할 것이다.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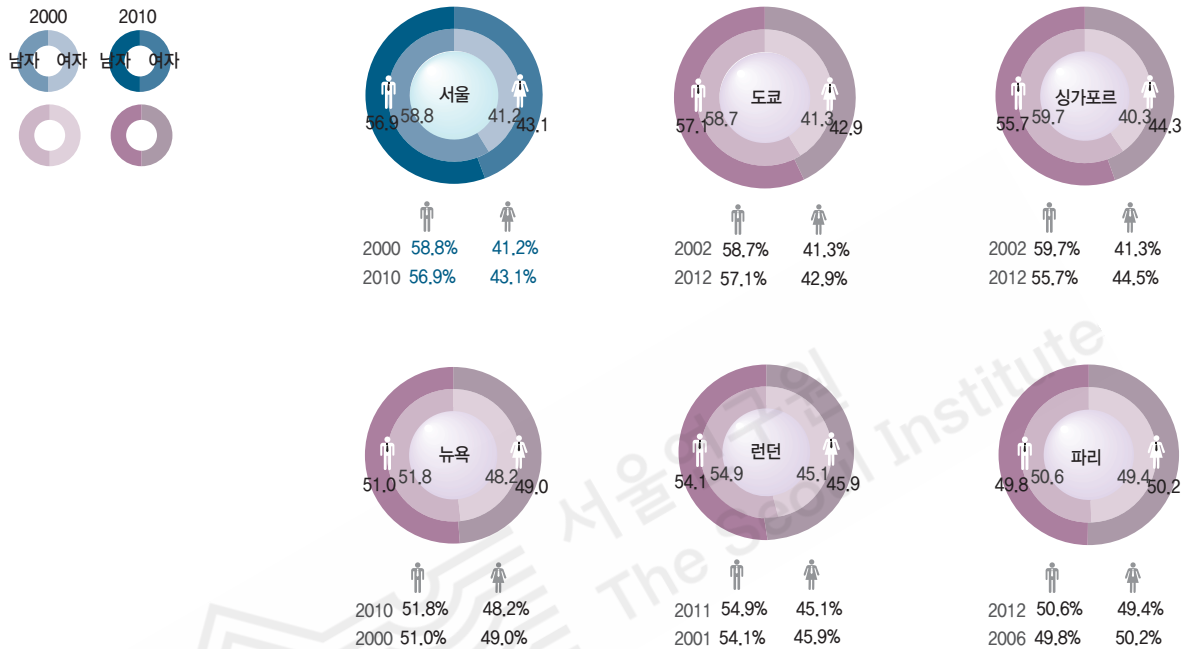
- 1)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이는 통계청 정의를 따라 고용률(%)=(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100으로 산출함.
· 도쿄, 베이징, 뉴욕, 런던, 파리는 고용률 지표에 대한 자료가 없어 취업자 수와 15세 이상 인구 지표를 통해 고용률을 직접 계산함.
- 2) 고용률은 2000년, 2010년을 기준으로 하되, 도쿄와 싱가포르는 2000년, 2010년 대신 2002년, 2012년, 런던은 2001년, 2011년, 파리는 2006년, 2012년 수치를 사용함.
- 3) 서울의 15세 이상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함.
- 4) 도쿄의 2002년 고용률 계산에 사용된 15세 이상 인구는 2003년 1월1일에 집계된 수치임.
- 5) 베이징의 고용률에 계산된 15세 이상 인구는 인구총조사 자료를 사용했으며, 이는 인구표본조사 추산수치 및 연말수치에 해당함.
- 6) 베이징의 취업자 수 지표는 2000년엔 종업인원(从业人员), 2010년엔 성진단위 종업인원(城镇单位从业人员)으로 변경됨. 이에 따라 2000년 취업자 수는 '사회노동에 종사하여 노동보수 혹은 경영 수입을 취득한 인원'을, 2010년 취업자 수는 '도시지역 법인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을 의미함.
- 7) 싱가포르의 고용률은 노동력과 고용자의 값이 큰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완전고용 하에 노동참여율(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s)을 고용률로 사용함.
- 8) 뉴욕의 고용률은 연령구간간격의 차이가 15세 이상 인구가 아닌 16세 이상 인구를 계산에 사용했으며, 군대는 제외함.

자료

서울: 통계청, 행정구역(시도)/성/연령별 취업자,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년 · 2010년 기준자료, 서울통계, 고용지표, 2000년 · 2010년 기준자료.

도쿄: e-stat, 第1表 男女·就業状態-就業希望意識-就業希望の有無·求職活動の有無·年齢別15歳以上人口, 平成14年就業構造基本調査, 2002년 기준자료.
e-stat, 第1表 男女·就業状態-仕事の主従-就業希望意識-就業希望の有無·求職活動の有無·配偶関係·年齢別15歳以上人口, 平成24年就業構造基本調査, 2012년 기준자료.
東京都, (3)地域・年齢(3区分)別人口, 2人口, 東京都統計年鑑 平成14年, 2003년 기준자료, 公益財団法人特別区協議会, 1 土地と人口, 平成24年版 特別区の統計, 2012년 기준자료.
베이징: 北京市统计局, 2001, 北京统计年鉴 2001, p.114, 2000년 기준자료.
北京市统计局, 2-11 城镇单位从业人员年末人数, 劳动报酬总额, 2010年北京市分区县主要统计数据目录, 2010년 기준자료.
싱가포르: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2008, Yearbook of Statistics of Singapore 2008, p.43, 2002년 기준자료.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2015, T5.1, Yearbook of Statistics of Singapore 2015, 2012년 기준자료.
뉴욕: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07, PCT079-Population Group-Total population, Census 2000 Summary File 4, 2000년 기준자료.
United States Census Bureau, B23001, 2010 American Community Survey 1-Year Estimates, 2010년 기준자료.
런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Number and Rates of London Residents Aged 16~64 in Employment('000's), 2000년 · 2010년 기준자료.
London Data Store, 2012, Census Ward Population Figures for London, Ward Population, 2001년 · 2010년 기준자료.
파리: INSEE, RP2006-2012 Exploitation Principale, 2006년 · 2012년 기준자료.
INSEE, 2015, Estimation de Population au 1er Janvier, Par Département, Sexe et Âge Quinquennal, 2006년 · 2012년 기준자료.

○ 성별 취업자 비중 Sexual Ratio of the Employed



성별 취업자 비중은 그 도시에서의 남녀평등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이다. 여성 취업자의 비중은 파리(2012년)와 뉴욕이 각각 50.2%, 49.0%로 50% 내외의 상태를 나타내며, 런던(2011년) 45.9%, 싱가포르(2012년) 44.3%, 서울

(2010년) 43.1%, 도쿄(2012년) 42.9%의 순을 나타내고 있다. 2000~2010년간 모든 도시에서 이들 수치가 증가하여 여성 취업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각 도시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

- 1) 남성(여성) 취업자 비중(%)=남성(여성) 취업자 수/전체 취업자 수×100
- 2) 전체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p.72 자료와 동일함.
- 3) 성별 취업자 비중은 2000년, 2010년을 기준으로 하되, 도쿄와 싱가포르는 2000년, 2010년 대신 2002년, 2012년, 런던은 2001년, 2011년, 파리는 2006년, 2012년 수치를 사용함.
- 4) 싱가포르의 성별 고용률은 성별 취업자 수를 취급하는 자료가 없어 성별 15세 이상 거주주자 인구와 고용률을 바탕으로 재계산해 성별 취업자 수를 구한 후, 비율을 계산함.
• p.72의 주기와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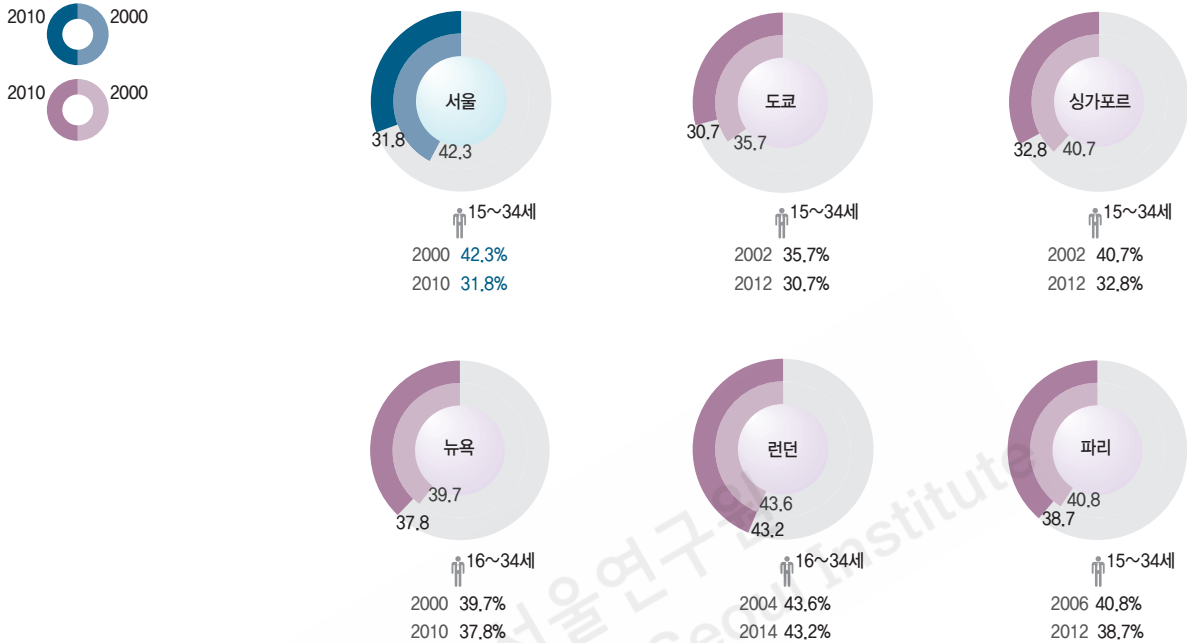
자료

서울: 통계청, 행정구역(시도)/성/연령별 취업자,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년·2010년 기준자료.
 도쿄: e-stat, 第1表 男女·就業状態·就業希望意識-就業希望の有無·求職活動の有無·年齢別15歳以上人口, 平成14年就業構造基本調査, 2002년 기준자료.
 파리: e-stat, 第1表 男女·就業状態-仕事の主従·就業希望意識-就業希望の有無·求職活

動の有無·配偶関係·年齢別15歳以上人口, 平成24年就業構造基本調査, 2012년 기준자료.
 싱가포르: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2008, Yearbook of Statistics of Singapore 2008, p.44, 2002년 기준자료.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2015, T5.3.5.4, Yearbook of Statistics of Singapore 2015, 2012년 기준자료.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Table A1.2 Singapore Residents by Planning Area/Subzone, Age Group and Sex, June 2002, 2002년 기준자료.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Table A1.2 Singapore Residents by Planning Area/Subzone, Age Group and Sex, June 2012, 2012년 기준자료.
 뉴욕: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07, PCT079-Population Group-Total population, Census 2000 Summary File 4, 2000년 기준자료.
 United States Census Bureau, B23001, 2010 American Community Survey 1-Year Estimates, 2010년 기준자료.
 런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Number and Rates of London Residents Aged 16~64 in Employment('000's), 2000년·2010년 기준자료.
 파리: INSEE, RP 2006 Exploitation Principale, 2006년 기준자료.
 INSEE, RP 2012 Exploitation Principale, 2012년 기준자료.

연령별 고용률 Employment Rate by Age

○ 청년(15~34세) 취업자 비중 The Ratio of the Employed among the Youth(15~34)



청년취업자는 주에 설명한 대로 각 도시의 조사구간이 달라 15~34세의 경제활동인구로 정의했다. 그 결과 청년취업자 비중은 런던이 43.2%, 싱가포르가 32.8%, 파리가 38.7%, 뉴욕이 37.8%, 서울이 31.8%, 도쿄가 30.7%로 각각 나타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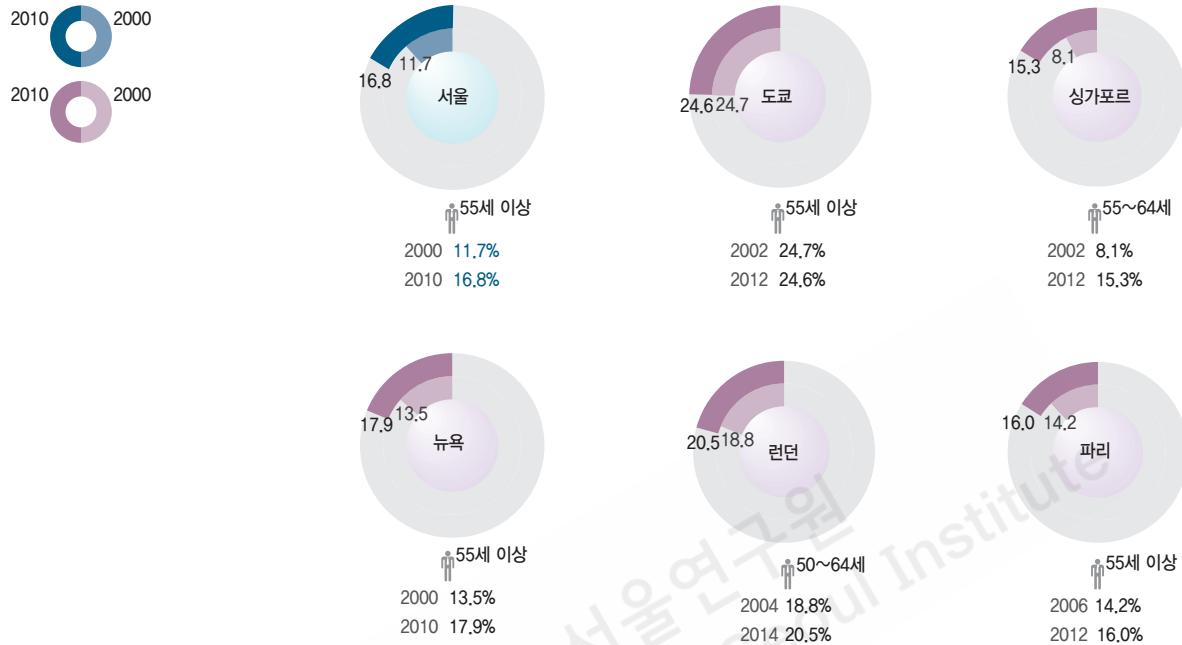
다. 2000년에 비해 최근의 수치가 모든 도시에서 감소하였으며, 특히 주목할 점은 서울의 수치가 2000년 42.3%에서 2010년 31.8%로 10.5%의 큰 감소폭을 보였다는 점이다.

주

- 1) 일반적으로 청년 취업자는 15~24세 또는 15~29세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로 정의하나, 각 도시의 연령별 취업자 조사 구간이 일치하지 않아 15~34세 경제활동인구를 청년 취업자로 정의해 비교함.
- 2) 통계청 방식에 따라 고령 근로자 비율은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55세 이상 근로자 수로 정의함.
- 3) 연령별 고용률은 청년(15~34세) 취업자 비중(%)=청년 취업자 수/전체 취업자 수×100, 고령(55세 이상) 취업자 비중(%)=고령 취업자 수/전체 취업자 수×100으로 산출함.
- 4) 연령별 고용률은 2000년, 2010년을 기준으로 하되, 도쿄와 싱가포르는 2000년, 2010년 대신 2002년, 2012년, 런던은 2004년, 2014년, 파리는 2006년, 2012년 수치를 사용함.

- 5) 싱가포르와 런던의 연령별 취업자 수는 15세 이상 64세 이하만 집계되어 55세 이상 연령의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음. 도시별 연령별 취업자 조사구간에 따라 싱가포르는 55~64세(거주권자 대상) 값을 사용하고, 런던은 50~64세 값을 사용함.
- 6) 싱가포르의 취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 수를 취급하는 자료가 없어 15세 이상 거주권자 인구와 고용률을 바탕으로 재계산한 값을 사용함.
- 7) 싱가포르의 연령별 고용률은 연령별 인구수에 고용률을 곱하여 연령별 취업자 수를 계산한 후, 비율을 계산함.
• p.72의 주7과 동일함.

고령(55세 이상) 취업자 비중 The Ratio of the Employed among the Old(55 and older)



55세 이상의 고령취업자 비중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자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가질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한 가지 척도이다. 조사결과 도쿄가 24.6%, 런던이 20.5%, 뉴욕이 17.9%, 서울이 16.8%, 파리가 16.0%, 싱가포르는 15.3%로

나타났다. 이들 수치는 2000년에 비해 대체로 증가한 수치이며, 역시 도쿄의 수치가 타 도시에 비해 높은 것은 고령화 지수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서울: 서울통계, 연령별 취업자, 2000년·2010년 기준자료.
 도쿄: e-stat, 第1表 男女·就業状態·就業希望意識-就業希望の有無·求職活動の有無·年齢別15歳以上人口, 平成14年就業構造基本調査, 2002년 기준자료.
 e-stat, 第1表 男女·就業状態-仕事の主従·就業希望意識-就業希望の有無·求職活動の有無·配偶関係·年齢別15歳以上人口, 平成24年就業構造基本調査, 2012년 기준자료.
 싱가포르: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2008, Yearbook of Statistics of Singapore 2008, p.43, 2002년 기준자료.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2015, T5.2, Yearbook of Statistics of Singapore 2015, 2012년 기준자료.

뉴욕: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07, PCT079-Population Group-Total Population, Census 2000 Summary File 4, 2000년 기준자료.
 United States Census Bureau, B23001, 2010 American Community Survey 1-Year Estimates, 2010년 기준자료.
 런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Annual Population Survey, 2004년·2014년 기준자료.
 파리: INSEE, RP 2006 Exploitation Principale, 2006년 기준자료.
 INSEE, RP 2012 Exploitation Principale, 2012년 기준자료.

산업 Industry

주요 업종별 종사자 비율 The Ratio of the Employed by Major Industries

(단위: %)

구분	서울		도쿄		베이징		싱가포르		뉴욕		런던		파리	
	2000	2013	2001	2012	2000	2013	2000	2013	2000	2013	2000	2013	2000	2013
농림광업	0.1	0.0	0.1	0.1	1.4	1.4	0.6	1.3	0.1	0.1	0.2	0.1	0.1	0.0
제조업	15.9	6.0	11.6	8.1	22.5	14.3	20.7	13.6	6.5	4.0	7.0	2.3	3.5	2.2
전기,가스 수도사업	0.3	0.2	0.5	0.4	1.0	1.2	-	-	-	-	0.2	0.5	1.2	0.8
건설업	6.6	6.2	5.9	5.4	12.2	5.9	13.1	5.0	4.3	4.9	3.3	3.2	1.8	1.7
서비스업	77.1	87.6	81.9	86.0	62.9	77.2	65.5	80.1	89.0	91.0	89.3	93.9	93.4	95.3

이번에는 비교대상 도시별로 산업별 종사자 비율을 보면 7개 도시 모두 2000년경에 비해 2013년경에 서비스 비중이 증가하였다. 도시별로 보면, 서비스 비중은 서울은 87.6%이고, 파리는 95.3%, 런던은 93.9%, 뉴욕은 91.0%로 서울보다 높으며, 도쿄는 86.0%, 싱가포르는 80.1%, 베이징은 77.2%로 서울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단순히 높은 수치가 좋은 것일 수는 없어 질적인 비교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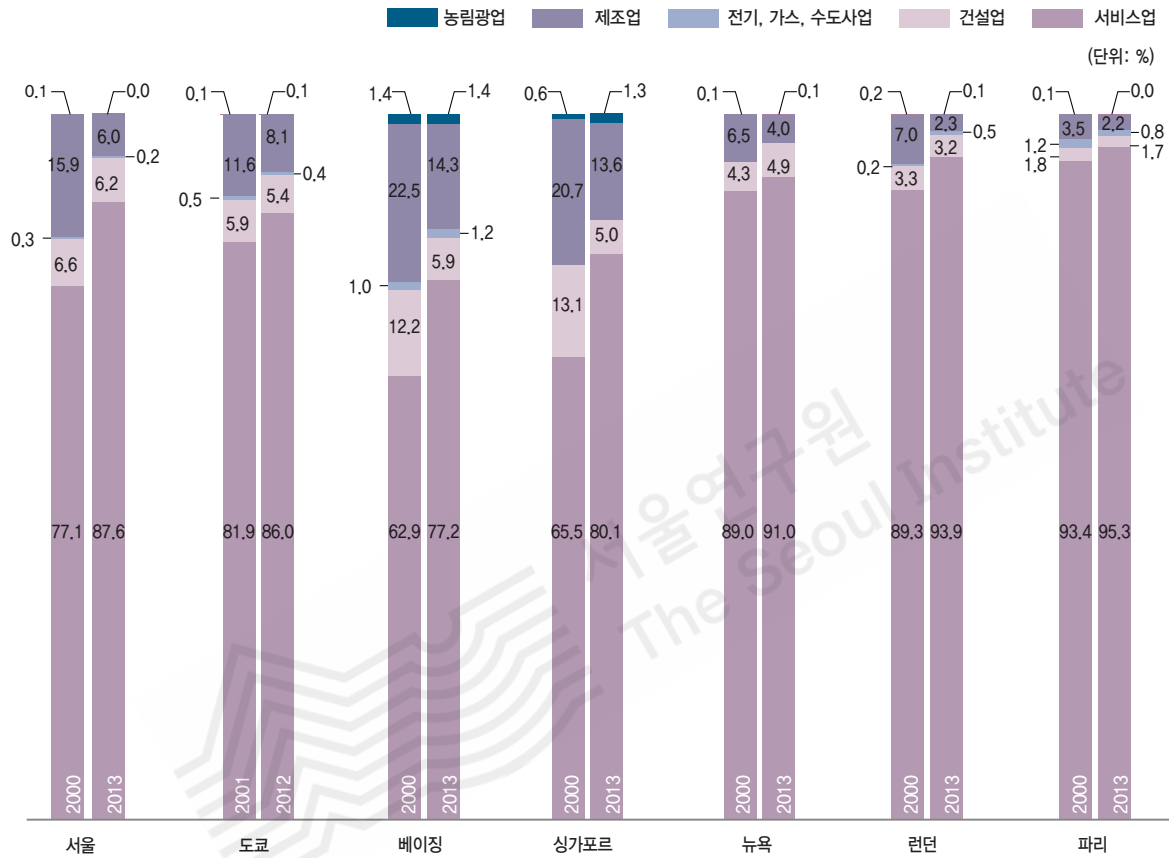
그리고 도시별로 분류체계가 달라 서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서비스업종별 종사자 비율은 pp.78~79의 그림과 같다. 먼저 서울을 보면 IT 기술 중심의 첨단화에 따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7.8%로 크게 증가하였고, 금융 및 보험업은 감소하였으나 6.4%를 보이며, 전

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10.0%를 차지하고 있다. 도쿄는 정보통신업의 비중이 10.6%로 증가하였으며, 금융 및 보험업은 5.6%, 학술연구·전문기술서비스업은 5.7%를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정보통신업이 5.6%이며, 금융 및 보험업이 9.0%로 증가하였다. 뉴욕은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임대업이 11.0%이며, 교육·보건·사회서비스업이 29.0%로 증가하였다. 런던은 정보통신업이 8.0%이며,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14.9%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파리는 정보통신업이 8.2%, 금융 및 보험업이 8.7%이며, 과학·기술·행정서비스 및 지원은 20.4%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베이징은 정보통신업과 컴퓨터서비스 등이 10.5%, 교육·문화·예술·방송업이 10.8%,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이 10.1%로 분석된다.

주

- 1) 주요 업종별 종사자 비율(%)=업종별 종사자/전체 종사자 수×100
- 2) 업종별 종사자 비율은 2000년과 2013년을 기준으로 하되, 도쿄는 2000년, 2010년 대신 2001년, 2012년 수치를 사용함.
- 3) 주요 업종 분류는 농림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 사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총 5가지로 분류했으나, 도시별로 분류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 분류기준 불일치로 생기는 항목은 유사한 분류에 포함함.
 - 베이징은 서비스업에 기타산업이 포함되어 있음.
 - 싱가포르의 산업별 종사자 분류 기준 중 '기타산업'의 경우 농업, 어업, 광업, 전기·수도·가스가 포함되어 있으나, 농림광업으로 분류함(전기·가스 수도사업 항목값은 0으로 처리).
 - 뉴욕의 산업별 종사자 분류 기준 중 운수 및 창고, 공익산업(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 and utilities)의 경우 전기·가스 수도사업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나, 서비스업으로 분류함.
 - 파리와 런던의 2013년 전기·가스 수도사업은 광물산업 포함.
- 4) 도쿄의 업종별 종사자 비율은 도쿄도를, 베이징은 베이징시(대도시권을 기준으로 함).
 - 5) 서울의 업종별 종사자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단, 2000년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제8차 개정을, 2013년은 제9차 개정을 적용함.
 - 6) 싱가포르의 2000년 업종별 종사자 수는 비거주권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나, 2013년은 거주권자 중 취업자를 대상으로 집계함.
 - 7) 싱가포르 업종별 종사자 분류는 싱가포르 표준산업분류(SSIC; Singapore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에 따르며, 2000년 자료는 SSIC2000, 2013년은 SSIC2010에 의한 분류임.
 - 8) 뉴욕의 2013년 업종별 종사자 비율 자료는 2009~2013년 5년간의 샘플 추정치에 기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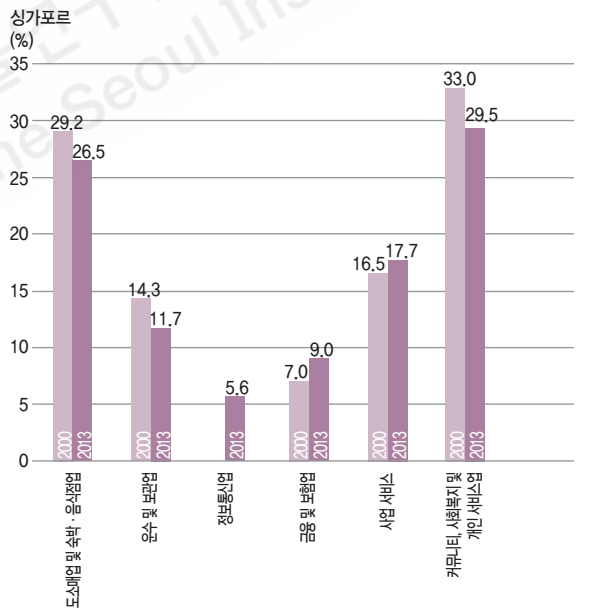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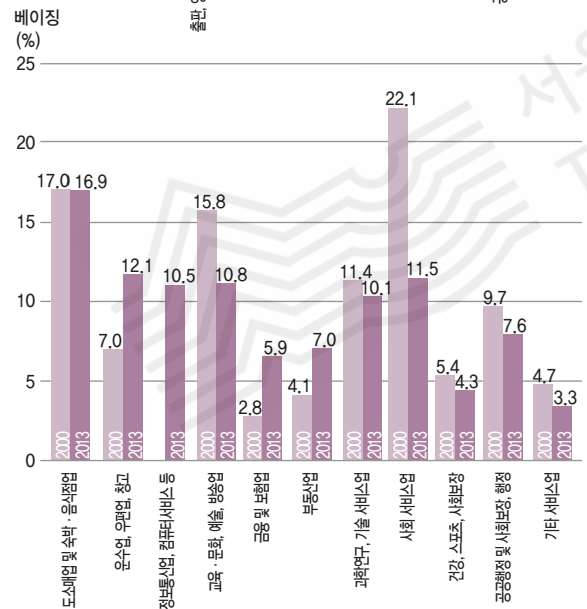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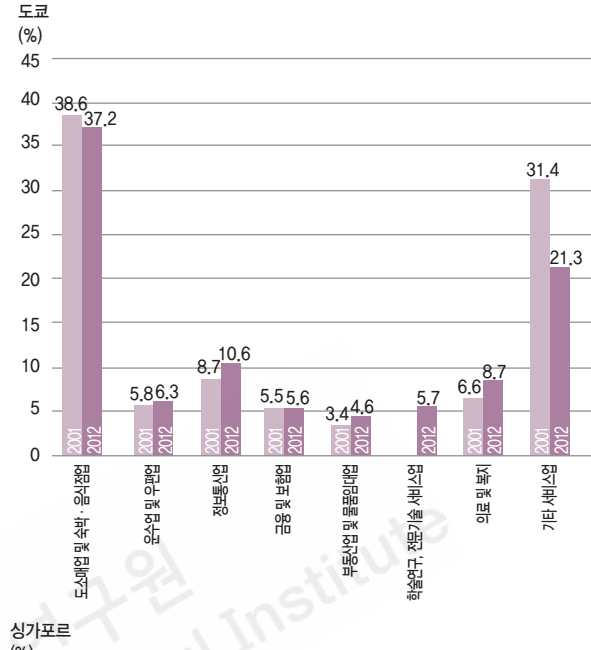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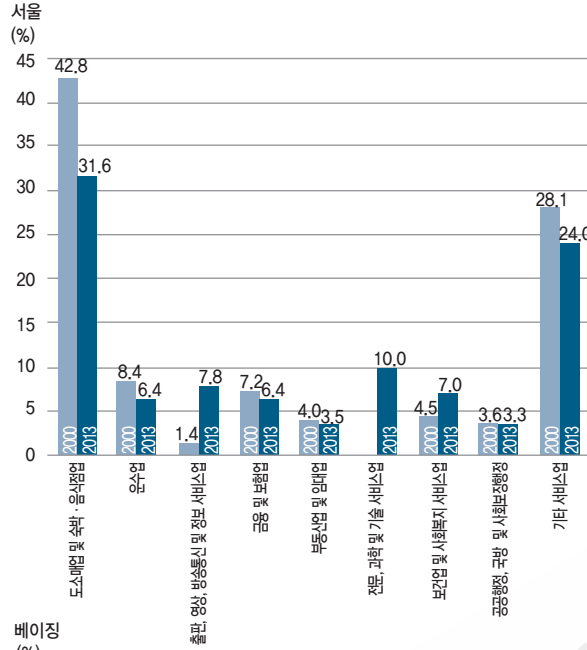


자료

서울: 통계청, 시도/산업/조직형태별 사업체수, 종사자수('93~'05), 전국사업체조사, 2000년 기준자료.
 서울통계, 사업체현황(산업대분류별 총괄)-2006년 이후, 2013년 기준자료.
 도쿄: 東京都産業労働局, 産業 雇用就業統計基本データ集, 東京の産業と雇用就業 2005, p.179, 2001년 기준자료.
 東京都産業労働局, 産業 雇用就業統計基本データ集, 東京の産業と雇用就業 2014, p.141, 2012년 기준자료.
 베이징: 北京市统计局, 2001, 北京统计年鉴 2001, p.113, 2000년 기준자료.
 北京市统计局, 2014, 北京统计年鉴 2014, p.76, 2013년 기준자료.
 싱가포르: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Singapore Yearbook of Manpower Statistics, 2000년 기준자료.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2015, T5.6, Yearbook of Statistics of Singapore 2015, 2013년 기준자료.
 뉴욕: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07, DP-3, Census 2000 Summary File 3, 2000년 기준자료.
 United States Census Bureau, S2405, 2009~2013 American Community Survey 5-Year Estimates, 2013년 기준자료.
 런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9, Annual Business Inquiry-Employees(Workplace) by industry, Workplace Employment by Industry from ABI, 2000년 기준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5, Employment(Workplace) by Industry, 2013년 기준자료.
 파리: INSEE, Estimations d'Emploi Localisées, 2000년 · 2013년 기준자료.

서비스업종별 종사자 비율 The Ratio of the Employed by Service Indu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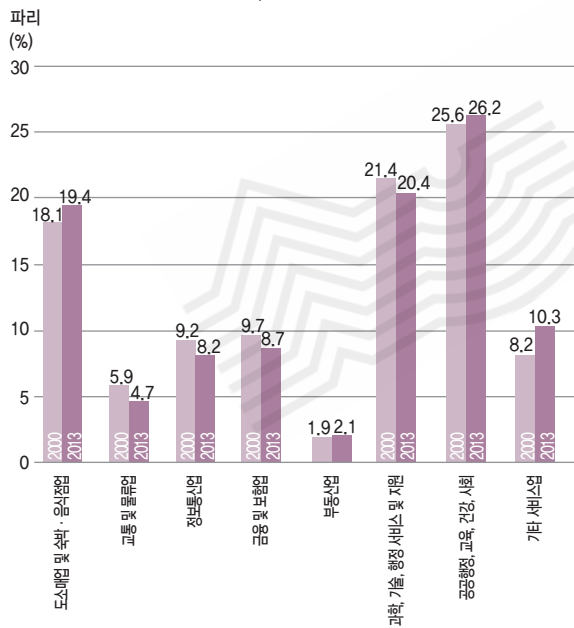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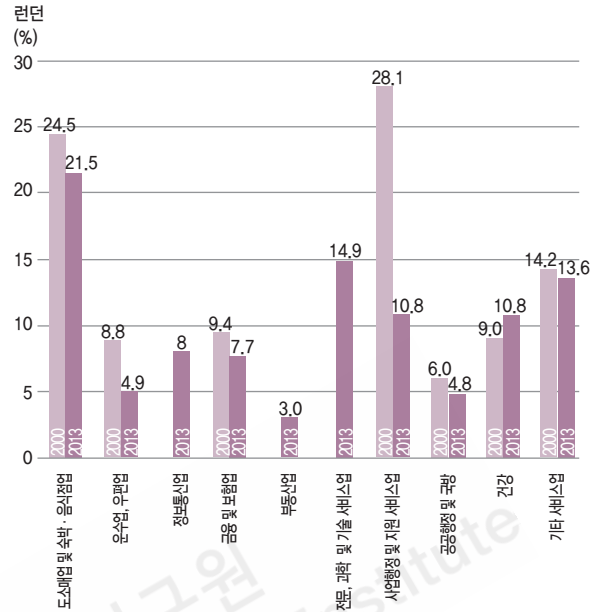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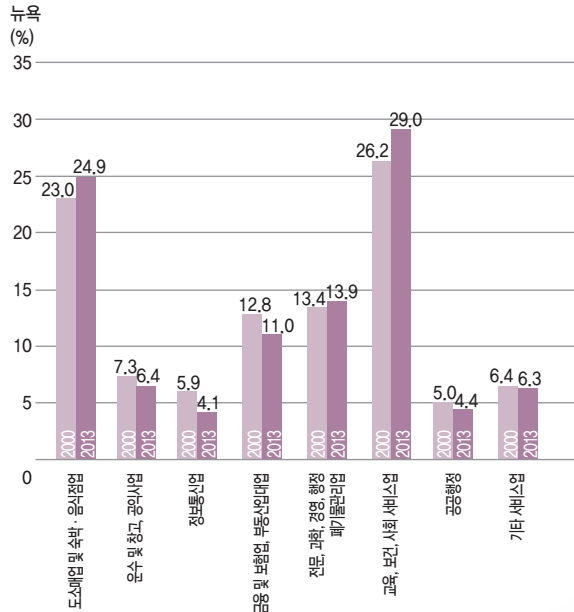


주

- 1) 서비스업종별 종사자 비율은 2000년, 2013년을 기준으로 하되, 도쿄는 2001년, 2012년 수치를 사용함.
- 2) 서비스업종별 종사자 비율은 p.76 자료와 동일함.

주

- 서울: 1) 2000년 기타서비스업에는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이 포함됐으며, 2013년의 기타서비스업에는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이 포함됨.
- 도쿄: 1) 도쿄도를 기준으로 함.
2) 2001년의 기타서비스업에는 '교육 및 학습지원업', '복합서비스업', '기타서비스'가 포함됐으며, 2012년의 기타서비스업에는 '생활관련 서비스업', '교육 및 학습지원업', '복합서비스업', '기타서비스'가 포함됨.
- 베이징: 1) 베이징시(대도시권)를 기준으로 함.
2) 기타서비스업에는 '수자원관리업 및 지질탐사업', '기타산업'이 포함됨.
- 싱가포르: 1) 2000년 서비스업 분류가 '교통, 보관 및 통신'으로 통합돼 있어, '운수 및 보관업'에 '정보통신업' 항목을 포함함(정보통신업 항목값은 0으로 처리).
2) '사업서비스업'은 '부동산업'이 포함됐으며, '금융 및 보험업'은 '금융산업' 수치만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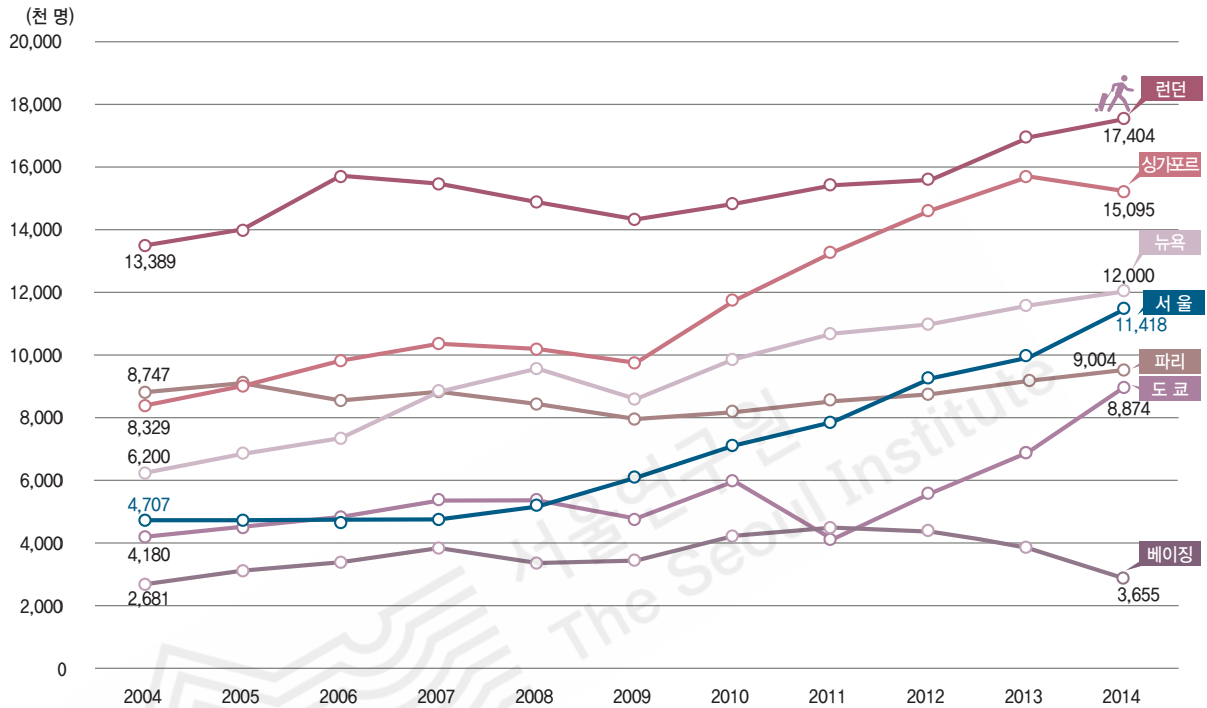


주

- 런던: 1) 2000년 서비스업 분류가 '교통, 보관 및 통신'으로 통합되어 있어 '운수업, 우편업'에 '정보통신업' 항목을 포함함(정보통신업 항목값은 0으로 처리).
 2) 2000년 서비스업 분류가 '부동산업, 중개업 및 사업활동'으로 통합되어 있어, 부동산업에 '사업행정 및 지원 서비스업' 항목을 포함함(사업행정 및 지원 서비스업 항목값은 0으로 처리).
 3) 2000년 기타서비스업은 '교육', '기타 지역, 사회 개인서비스업' 항목이 포함되며, 2013년 기타서비스업은 '교육' 및 '예술 및 오락, 기타서비스업' 항목이 포함됨.

관광 Tourism

외국인 관광객 수 The Number of Foreign Tourists



외국인 관광객 수를 비교하면 서울이 1,142만 명으로 2000년대에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서울시의 외국인 관광객 수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수치는 런던의 1,740만 명, 싱가포르

의 1,510만 명, 뉴욕의 1,200만 명에는 뒤지는 수치이나 파리의 900만 명, 도쿄의 887만 명, 베이징의 365만 명보다는 많아 향후에도 관광서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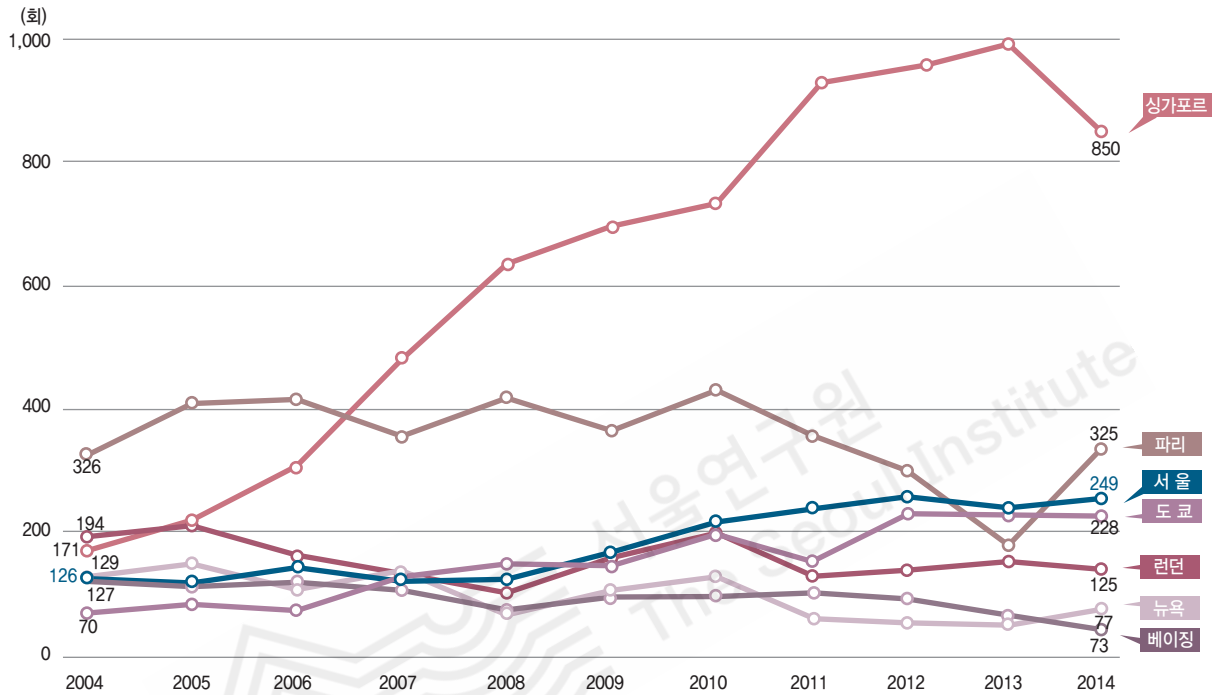
주

- 1)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방문한 외국인 수를 기준으로 함.
- 2)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한국의 외래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 설문조사에서 한국어 행 시 방문한 시·도 중 서울방문 응답자 비율을 이용해 직접 계산함.
- 3) 도쿄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도쿄도를, 베이징은 베이징시(대도시권을) 기준으로 함.
- 4) 베이징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도시 내 관광객 중 외국인 수치를 사용함.
- 5) 싱가포르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해당국 입국 지점에서 방문자가 제출한 출국/입국 신고서를 바탕으로 집계함. 단, 육로를 통해 입국하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방문자는 제외함.
- 6) 파리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파리의 호텔에 도착한 외국인 수로 집계함.

자료

- 서울: 서울통계, 외국인 국적별 방문객, 2004~2014년 기준자료.
 한국관광공사, 외래관광객실태조사보고서 2004~2014, 2004~2014년 기준자료.
 도쿄: <http://www.sangyo-rodo.metro.tokyo.jp/toukei/tourism>(東京都産業労働局 홈페이지), 2004~2014년 기준자료.
 베이징: 北京市统计局, 2014, 16-2 按客源地区入境旅游者人数, 北京统计年鉴 2014, 2004~2014년 기준자료.
 싱가포르: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2008, Yearbook of Statistics of Singapore 2008, p.173, 2004~2007년 기준자료.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2015, T18.1, Yearbook of Statistics of Singapore 2015, 2008~2014년 기준자료.
 뉴욕: <http://www.nycandcompany.org/research/nyc-statistics-page>(NYC & company 홈페이지), 2004~2014년 기준자료.
 런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5, International Visitors to London, 2004~2014년 기준자료.
 파리: Office du Tourisme et des Congrès de Paris, le Tourisme à Paris en 2007~2014, 2004~2014년 기준자료.

국제회의 개최건수 The Number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국제회의의 개최건수를 비교하면(UIA 기준) 서울은 249회로 비교대상 도시 중에서 3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싱가포르가 2014년에 850회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위를 차지하

고 있는 반면, 파리가 2위(325회), 도쿄가 4위(228회), 런던이 5위(125회), 뉴욕이 6위(77회), 베이징이 7위(73회)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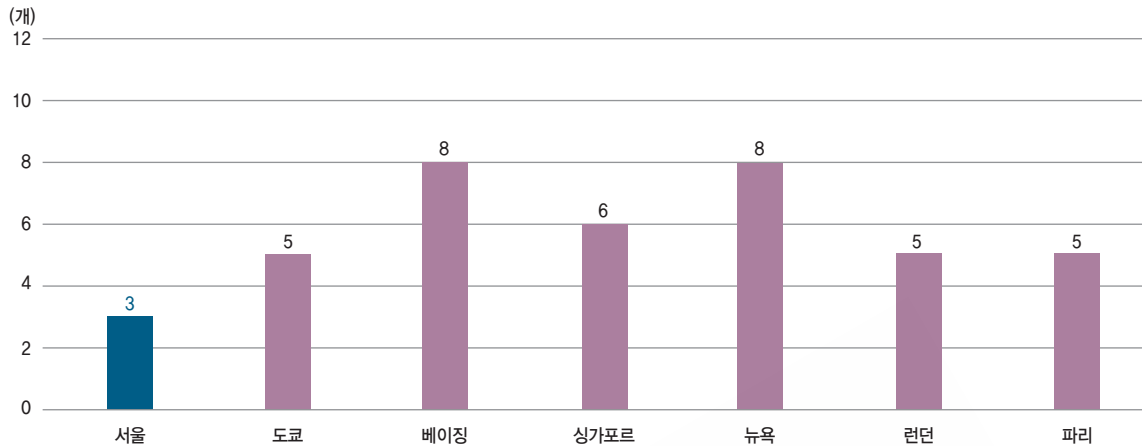
주

- 1) UIA(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는 국제회의를 국제기구가 주최(후원)하는 회의 중 참가자 수 50명 이상이거나 국제기구의 국내지부 또는 국내단체가 주최하는 회의로 참가국 수 5개국 이상, 참가자 수 300명 이상(또는 전시회 동반), 외국인 참가자 비율 40% 이상, 회의기간 3일 이상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의로 정의함.
- 2) 국제회의의 개최건수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개최된 국제회의를 기준으로 함.

자료

- 모든 도시: UIA, 2009, International Meetings Statistics Report for the Year 2008, 2004~2008년 기준자료.
 UIA, 2014, International Meetings Statistics Report for the Year 2013, 2009~2013년 기준자료.
 UIA, 2015, International Meetings Statistics Report 56th Edition, 2014년 기준자료.

전문 컨벤션시설 수 The Number of Special Convention Facilities



여기에서는 많은 컨벤션시설 중에서 공공이 운영·관리하는 회의실당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 컨벤션시설을 비교하였다. 그밖에 시설면적, 수용능력, 개최 시 참여 인원 등 질적인 변수를 고려해야 하나, 이러한 내용은 발표 자료마다 각기 다르고 신뢰성도 의문시되는 경우가 많아, 여기에서는 공공이 운영하는 전문 컨벤션시설 수만을 가지고 비교하려고 한다.

표를 보면, 서울은 3개이며, 파리가 5개, 베이징과 뉴욕이 각각 8개, 싱가포르가 6개, 도쿄가 5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COEX 등과 같이 1개 시설도 그 규모가 커서 세계적인 회의 장소가 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숫자가 작다고 해서 컨벤션시설이 적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컨벤션시

설의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전문 컨벤션시설의 시설 수와 개최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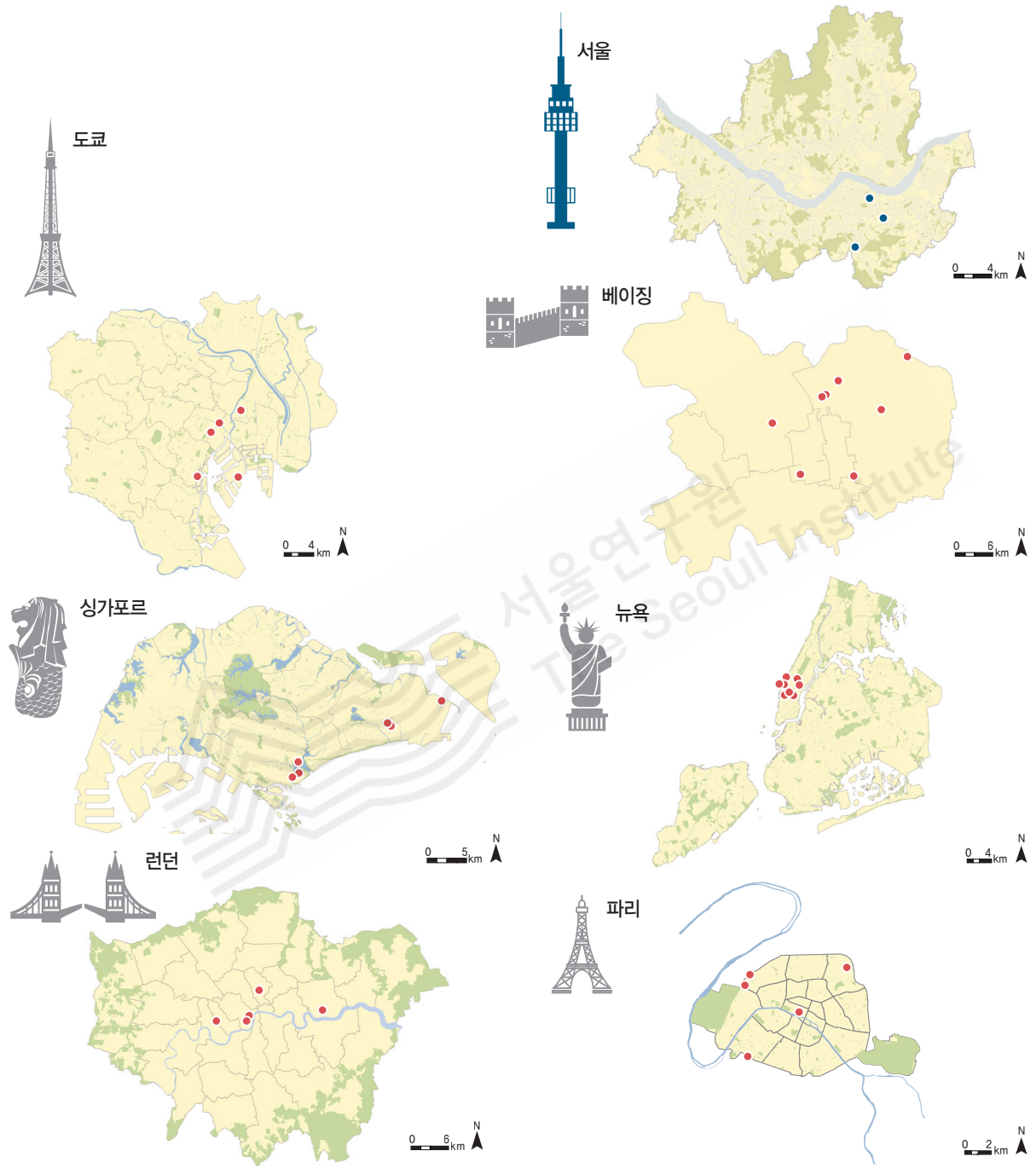
전문 컨벤션시설의 분포를 보면 파리와 베이징은 도시 전체로 분산되어 있고, 뉴욕과 런던, 도쿄, 싱가포르는 도시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의 전문 컨벤션시설은 강남에 위치하고, 도심에는 호텔, 상공회의소, 은행회관 등 다수의 민간시설에서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있어,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장래 전문 컨벤션시설 수는 추가적인 공급계획으로 보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

1) 공공이 운영·관리하고 회의실당 수용인원 300명 이상인 전문 컨벤션시설만 집계했으며, 호텔 컨벤션은 제외함.

전문 컨벤션시설 분포도 Map of Special Convention Facilities



자료

서울: http://www.miceseoul.com/서울컨벤션_부록-서울관광마케팅_홈페이지, 2015년 기준자료.
 도쿄: http://mice-japan.alexis.jp/mice_convention.html(Mice Japan 홈페이지), 2015년 기준자료.
 베이징: 각 컨벤션센터 홈페이지, 2015년 기준자료.
 싱가포르: http://www.yoursingapore.com/싱가포르_관광청_공식_홈페이지, 2015년 기준자료.

뉴욕: <http://www.meetings-conventions.com>(Meeting and Conventions 홈페이지, Convention-Centers 자료), 2015년 기준자료.
 런던: 각 컨벤션센터 홈페이지, 2015년 기준자료.
 파리: CCI Paris Ile-de-France '20 Main Exhibition Centers', 2015년 기준자료.